

1

THEME

품사



㉠ 테마 소개

첫 번째 테마는 ‘품사’입니다. ‘품사’란 ‘단어 부류의 이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각 단어에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두 번째 테마인 ‘문장 성분’과 엮어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정확한 뜻과 역할, 차이점 등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자, 많은 문제에 쓰이는 기본 도구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능 언어(문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도 볼 수 있으니, 완벽하게 정복하도록 합시다. 첫 두 테마가 모든 테마 중에서 ‘지식 소개’ 파트가 가장 긴 테마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파트들이니 꼭 참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주세요.

㉡ 지식 소개

국어에서의 품사는 아래와 같이 ‘형태’에 따라 2개, ‘기능’에 따라 5개, ‘의미’에 따라 9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 제외) 표에 제시된 품사의 종류는 예와 함께 ‘암기’해 두도록 합시다. 암기해야 할 몇 안 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형태	기능	의미	예
불변어	체언	명사	학교
		대명사	나, 너, 이것
		수사	하나, 둘, 셋
	수식언	관형사	옛, 흰, 새, 이, 그, 저 한, 두, 세
		부사	잘, 빨리
	관계언	조사	이/가, 은/는, 을/를
독립언	감탄사	아이고	
가변어	용언	동사	가다, 먹다
		형용사	예쁘다, 높다
	관계언	서술격 조사 ‘이다’	이다

‘불변어’란 그 형태가 쓰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용언’을 제외한 모든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용언’의 경우 뒤에서 배울 ‘어간, 어미’의 활용에 의해 그 형태가 변할 수 있기에 ‘가변어’, 즉 형태가 쓰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단어에 속합니다.

한편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 관계언에 속하는 조사임에도 예외적으로 ‘가변어’에 속합니다. 뒤에 어미가 붙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품사는 ‘불변어/가변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체언

문장에서 주체적인 성분으로 쓰이는 단어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1)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누는 것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 자립 명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들
- 의존 명사 : 꾸밈을 받아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명사

‘자립 명사’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명사에 해당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정의보다는 아래의 예시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영미가 가져온 것은 책이다.
난 할 만큼 했다.
나는 그저 기쁠 따름이다.
그는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한 대로 따라 해 봐라.
그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다.
사과 두 개
나무 두 그루
토끼 세 마리
친구 다섯 명

이처럼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 뒤에서 쓰이거나, 수관형사 (한, 두 ...) 뒤에서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것들을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각각 ‘관형어’와 ‘관형사’에 ‘의존’해야만 쓰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 제시된 예시 말고도, 평소 문제를 풀면서 최대한 많은 예시를 접하도록 합시다. ‘경험치’가 중요한 영역 중 하나예요.

(2) 대명사

어떠한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크게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 있어요. 나아가 조금 심화된 개념으로 ‘미지칭/부정칭’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 인칭 대명사 :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등 (화자)
2인칭: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귀하 등 (청자)
3인칭: 그, 그이, 이분, 그분 등 (제삼자)

· 지시 대명사 : 사물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대명사

	화자에게 가까움	청자에게 가까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멀
사물	이, 이것	그것	저것
공간	여기, 이쪽	거기, 그쪽	저기, 저쪽

[지시 대명사의 종류]

굳이 표를 그려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이란 너무나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납득만 하고 넘어갑시다.

· 미지칭 대명사: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무엇인지 모를 때 사용

예) 누구세요? 날씨가 언제야? 장소가 어디야? 그게 무엇이니?

· 부정칭 대명사: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or 굳이 밝히지 않는 것

예) 누구나 환영해요. 언제든지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는 뭐에 홀린 듯이 걸어갔다.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어.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정칭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 (예) 누구나 환영해요.) 혹은 ‘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예) 나 지금 누구 좀 만나러 가야 해.)에 쓰입니다. 반면 그 외에 누군가가 특정되어 있으면서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 미지칭이 되는 것이죠. (예) 아까 만난 사람은 누구야?).

(3)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나눌 수 있어요.

· 양수사: 하나, 둘, 셋, 넷(고유어계) / 일, 이, 삼, 사(한자어계)

예) 사람 다섯이 걸어온다.

· 서수사 : 첫째, 둘째, 셋째, 넷째(고유어계) / 제일, 제이, 제삼, 제사(한자어계)

예) 첫째가 진리이고, 둘째가 자유이다. (cf. ‘첫째’가 ‘형제자매에서 제일 순위인 사람’을 뜻할 때에는 수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단순히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읽으면서, 납득하고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카테고리를 만들어 구조화시키면서 학습하세요.

2. 수식언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즉 '수식'해주는 단어를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수식언'은 수식의 대상에 따라 '관형사'와 '부사'로 나눌 수 있어요.

(1)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에서의 '형용사'는 영어와는 다릅니다. 뒤의 '용언'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니, '관형사'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는 데 초점을 둡시다.

관형사 역시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관형사라는 '감'이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관형사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에 익히려고 하세요.)

갓은	예 갓은 노력을 다하다.
다른	예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맨	예 그는 맨 처음 결승선에 도착했다.
모든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몹쓸	예 나는 그에게 몹쓸 소리를 마구 해 댔다.
무슨	예 무슨 일 있었니?
뭣	예 어둠 저쪽에서 뭣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새	예 새 집을 마련했다.
아무런, 아무	예 나는 그와 아무런(아무) 사이가 아니다.
애먼	예 애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
어느	예 어느 것이 맞는 답입니까?
여느	예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옛	예 10년 뒤 찾은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오랜	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
온	예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
온갖	예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
외딴	예 나는 외딴 마을로 들어섰다.
웬	예 웬 날벼락이람.
첫	예 재섭이는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허튼	예 그는 허튼 말을 하고 다닐 사람은 아니다.
헌	예 헌 신문지를 모으다.

모두 특정 체언을 수식하고 있죠? 단어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예시를 보고 왜 저 단어가 관형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관형사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각각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 '무언가를 지시', '수를 나타냄' 정도의 의미로 납득하시면 됩니다.

한편, '수관형사'는 체언의 '수사'와, '지시관형사'는 체언의 '대명사'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 수사 vs 수관형사

예 저기 사람 다섯이 있다. / 저기 다섯 사람이 있다.

여기서 '다섯'이 각각 '수사', '수관형사'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각 개념의 '정의 + 특징'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는 '체언'의 일종으로, 문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라는 조사(뒤에서 배웁니다.)가 붙고 있다는 점에서 첫 문장의 '다섯'은 '체언' 중 하나인 '수사'에 속하는 것이죠.

한편 두 번째 문장의 '다섯'은 '관형사' 중 '수관형사'에 해당합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체언 앞에서 수식하는 '다섯'은 '관형사'인 것이죠. 이처럼 각 개념의 정의, 성질 등을 생각하면 헷갈리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외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정의 + 특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며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 대명사 vs 지시관형사

예 그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 (이, 그, 저) 사람은 누구니?

예 이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이다. / (이, 그, 저) 사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

두 예시 모두, 앞 문장의 '그', '이'는 '대명사'에, 뒷 문장의 '이, 그, 저'는 '지시관형사'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각각 '체언'과 '관형사'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래의 예시로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예	품사
저기 사람 <u>다섯</u> 이 있다.	수사
저기 <u>다섯</u> 사람이 있다.	관형사
<u>그</u> 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대명사
<u>그</u> 사람은 누구니?	관형사

(2) 부사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정 단어를 꾸며 주는 부사는 '성분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는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부사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에 익히려고 하세요.)

잘 예 그 아이는 밥을 잘 먹는다.

특히 예 그 식당은 제육볶음이 특히 맛있다.

너무 예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웠다.

많이 예 부담 없이 많이 먹어라.

설마 예 설마 그가 도둑질까지 하겠습니까? / 그가 설마 도둑질까지 하겠습니까? / 그가 도둑질까지 설마 하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설마'와 같은 부사들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로,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나아가 '그러나', '게다가'와 같은 '접속 부사'도 있다는 것까지 챙겨 보세요. 역시 저 문장들에서 '부사'임을 당연하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라고 하는 몇 가지 개념을 제외하고는 '암기'보다 '납득'에 초점을 두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3. 관계언

품사 파트에서 용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관계언'입니다. '관계언'에는 '조사'만 있는데, '조사'는 그 종류와 예시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다양하게 쓰이는 데다, 다른 품사 및 문장 성분과 연계하여 출제되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1) 조사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품사와 달리 홀로 쓰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체언 뒤에 붙어 나타납니다. 이런 정의보다는 아래의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 두세요.

· 격 조사

단어들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서 어떤 체언에게 (체언 뒤에 붙는 것이 '조사'라는 건 잊지 않았죠?)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격 조사 앞에 붙은 체언이 '주어'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조사.

종류 이, 가, 께서, 에서

→ '께서'는 높임의 대상 뒤에서, '에서'는 단체 뒤에서 주격 조사 기능을 합니다. 흔히 영어에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주어'에 붙이는 조사인 '은/는/이/가'와는 다릅니다. 암기하세요. '이, 가, 께서, 에서!'

예) 하늘이 푸르다. / 바다가 푸르다. / 아버지께서 이제 오셨다. /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목적격 조사 앞에 붙은 체언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조사.

종류 을, 를

예) 나는 밥을 먹는다. / 나는 차를 마신다.

관형격 조사 앞에 붙은 체언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조사. ('관형사'와는 다릅니다. 뒤의 '문장 성분' 테마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종류 의

예) 그것은 나의 책이다.

부사격 조사 앞에 붙은 체언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조사. (역시 '부사'와는 다릅니다.)

종류 에, 에서, 에게, 로, 와 ...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예) 나는 어제 집에 있었다. / 나는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 /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다. / 얼음이 물로 변했다. / 철수는 영희와 결혼했다.

보격 조사 앞에 붙은 체언이 '보어'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조사.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보어'는 '되다/아니다' 앞에 '이(가)'가 결합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때 '이(가)'가 보격 조사입니다. '되다/아니다' 앞을 주의하세요. '주격 조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종류 이, 가

예)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 철수는 가수가 아니다.

서술격 조사 앞에 붙은 체언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조사.

종류 -(이)다 ('-이므로', '-이니', '-이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용언'이 아닌 데도 '가변어'에 속합니다.)

예) 나는 대학생이다. / 나는 대학생이고, 그는 고등학생이다.

이 외에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민재야’와 같은 ‘호격 조사’도 있습니다. 이 격 조사의 경우, 뒤 테마에서 배울 ‘문장 성분’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격 조사’의 종류는 몇 번이고 손으로 써 보면서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 보조사

앞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체언’ 뒤에만 붙는 다른 조사들과는 달리, 보조사는 ‘체언’을 비롯하여 부사, 어미 등에도 다양하게 붙을 수 있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의 자리에 두루 쓰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개념이에요.

예) 나만 밥을 먹는다.(체언 뒤) / 기차가 그렇게 빨리는 못 간다.(부사 뒤) / 기차가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 한다.(어미 뒤)

예) 철수만 밥을 먹는다.(주어), 철수가 밥만 먹는다.(목적어), 여기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된다.(부사어)

다시 말해서, ‘보조사’의 경우 ‘격 조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의 주격 조사 ‘가’는 ‘철수만 밥을 먹는다.’, ‘철수는 밥을 먹는다.’처럼 ‘만’, ‘는’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철수만이 밥을 먹는다.’ ‘만’이라는 보조사와 ‘이’라는 주격 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하죠. 뒤에서 배울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보조사가 어떤 격 조사 자리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사의 경우,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격 조사의 종류를 외워두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조사인지 모르겠으면 대충 보조사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아래의 종류 정도만 눈에 익혀 두고,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보조사를 꼭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합시다. 이것도 ‘경험’이 중요한 영역이에요.

· 은/는 [대조], [이전에 제시된 정보]

예) 철수가 국어는 좋아한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그 임금님은~

· 만 [단독]

예) 철수가 국어만 좋아한다.

· 도, 까지, 마저, 조차 [포함]

예) 철수(도, 까지, 마저, 조차) 나를 싫어한다.

· (이)나, (이)나마 [(차선의) 선택]

예) 빵이나 먹자. 빵이나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 요, 마는, 부터, (이)야, (이)야말로, ……

예) 제가(요) 어제(요) 학교에(요) 갔는데(요).

예) 사고 싫다 마는 돈이 없다.

예) 너부터 먼저 먹어라.

예) 다른건 몰라도 국어야 철수가 최고다.

예) 너야 말로 조용히 해라.

대충 어떤 것들을 ‘보조사’라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 번 보면서 눈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 접속 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는 게 바로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나는 사과(와, 랑, 하고) 배를 먹었다.

예) 과일 농장에 가면 사과(며) 수박(이)며 먹을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보통 출제된다면 ‘와/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접속 조사 ‘와/과’ vs 부사격 조사 ‘와/과’

접속 조사 ‘와/과’와 부사격 조사 ‘와/과’는 형태가 같아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면 구별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접속 조사 ‘와/과’는 문장을 둘로 쪼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부사격 조사 ‘와/과’는 문장을 둘로 쪼갤 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 ① 철수는 사과와 배를 먹었다. ⇨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철수는 배를 먹었다.
- ② 철수는 빵을 우유와 먹었다. ⇨ 쪼갤 수 없음
- ③ 동생과 나는 키가 크다. ⇨ 동생은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 ④ 동생과 나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 쪼갤 수 없음.

따라서 ①, ③의 ‘와/과’는 접속 조사, ②, ④의 ‘와/과’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 조사의 특징

조사의 경우,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라 몇 가지 특징을 알아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① 생략이 가능하다.
예 너(가) 밥(을) 먹었어?
- ② 여러 개의 조사가 연이어 결합할 수 있다.
예 학교에서의 생활(부사격조사+관형격조사), 빵만으로 살 수 없다(보조사+부사격조사).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하다(부사격조사+보조사+주격조사).
- ③ 보조사를 제외하면, 반드시 체언 뒤에 붙는다. → 이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헛갈리는 다른 개념들과 명확한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뒤에서 배울 ‘어미’와의 비교, 앞에서 배운 ‘의존 명사’와의 비교가 대표적이예요. ‘어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조사와 ‘의존 명사’와의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띄어쓰기 문제로 종종 출제되는 것이 ‘의존 명사 vs 조사’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으)르, -(으)ㄴ, -는’ 뒤에 오는 것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언 뒤에 오는 것이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의존 명사	조사
대로	느낀 <u>대로</u> 설명해라.	처벌하려면 <u>법대로</u> 해라.
뿐	소문으로만 들었을 <u>뿐</u> 이다.	믿을 것은 실력 <u>뿐</u> 이다.
만	그가 화를 낼 <u>만</u> 도 하다.	하루 종일 잠 <u>만</u> 잤다.
만큼	노력한 <u>만큼</u> 대가를 얻는다.	집을 <u>대궐만큼</u> 크게 짓다.

대충 감이 오시죠? ‘체언+조사’라는 기본적인 뼈대만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체언 뒤에 오지만 의존 명사인 것이 있는데,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바로 표에 있는 ‘만’인데, ‘만’이 시간이나 횟수와 어울릴 때에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예 십 년 만의 귀국. 두 시간 만에 떠났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불변어에는 이 외에 ‘독립언’에 해당하는 ‘감탄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감탄사’ 맞습니다. 이 이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개념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4. 용언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배울 것이 많은 파트입니다. ‘어미’라는 것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는 아주 골치 아픈 개념이에요. 완벽하게 정리해봅시다.

(1)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걷다’, ‘먹다’ 등 ‘동작’과 관련된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 자동사

주어의 움직임만을 나타내는 동사를 말합니다. 문장 성분 중 ‘목적어’ 없이도 쓸 수 있어요. 예 나는 학교에 간다.

· 타동사

주어의 움직임이 목적어에도 영향을 주는 동사를 말합니다. 문장 성분 중 ‘목적어’가 필요해요. 예 나는 밥을 먹는다.

(2)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 물이 정말 깨끗하다. /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르다.

동사와 형용사는 같은 용언인데도 그 생김새가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정의만으론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가볍게 정리하고 갑시다.

· 동사 vs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으로 기본형이 ‘-다’로 끝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나다’ 혹은 ‘-는다’를 결합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사 ‘가다’, ‘먹다’는 ‘간다’, ‘먹는다’와 같이 ‘-나다’ 혹은 ‘-는다’가 결합될 수 있지만, 형용사 ‘예쁘다’, ‘높다’는 ‘예쁘나다(×)’, ‘높는다(×)’로 ‘-나다’, ‘-는다’가 결합될 수 없어요. 이 외에도 명령형/청유형 가능 여부와 의도의 어미 ‘-려고/-려고’의 결합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가능하면 동사) ‘-나다’, ‘-는다’의 결합 여부만으로도 대부분의 동사/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으니 이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3) 본용언과 보조용언

동사나 형용사 등의 용언이 두 개 나열되었을 때는 ‘본용언+본용언’이거나 ‘본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본용언’은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쓰이는, 즉 의미가 그대로 쓰이는 용언을 의미하고,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보조’하는 용언을 의미해요.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세한 예시와 함께 살펴 봅시다.

① 본용언 + 본용언 : 두 용언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습니다. 두 용언의 뜻이 모두 의미를 형성하는 데 쓰여야 해요.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찢다+버리다)

예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먹다+가다)

예 돈을 한꺼번에 말고 나눠서 주어라. (나누다+주다)

② 본용언 + 보조용언 :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본용언 없이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동생이 먹어 버렸다. (먹다 + 버리다)

예 밥을 다 먹어 간다. (먹다+가다)

예 그는 붓을 들고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다. (쓰다+나가다)

예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업다+주다)

· 본용언 vs 보조용언

용언이 두 개 나열될 때, 앞의 용언은 항상 본용언이지만 뒤의 용언은 본용언, 보조용언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뒤의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로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에요.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으면 본용언, 그렇지 않으면 보조용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보조용언'의 의미에 따라 제1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로도 알 수 있어요. 아래 예시들로 정리해봅시다.

예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 그는 밥을 먹다. 그는 학교에 간다. 'go'의 의미가 있음 ∴ '간다'는 본용언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 종이를 찢는다. 종이를 휴지통에 버린다. 'dump'의 의미가 있음 ∴ '버린다'는 본용언

예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 나는 동생을 업었다. 'give'의 의미가 없음 ∴ '주었다'는 보조용언

예 실수로 돈을 찢어 버렸다. ⇨ 실수로 돈을 찢었다. 'dump'의 의미가 없음 ∴ '버렸다'는 보조용언

참고로, '본용언+본용언' 구성의 경우 각자가 별개의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한편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의 경우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도 허용합니다. 물론 보통 <보기>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미리 알아 둡시다.

(4) 어간과 어미

'용언' 관련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용언은 '활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은 용언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가변어'였죠? 그런데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다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 보죠.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 집중하고 따라옵시다!

· 어간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어미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니 너무 애매하죠? 예를 들어 설명해봅시다.

예 먹다 ⇨ 먹고, 먹으니, 먹자, 먹은 ...

예 예쁘다 ⇨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쁜 ...

예 말하다 ⇨ 말하고, 말하니, 말하자, 말하는 ...

이렇게 용언의 형태가 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 '예쁘-'의 경우 어떤 어미가 오더라도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 '어간'에 해당하고, '-다', '-고', '-(으)니', '-자', '-(으)ㄴ' 같은 경우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예쁘'와 같은 단어는 '예쁘- + -ㄴ'의 구성이에요. 'ㄴ' 하나도 어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확실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어떻게 나뉘는지 헛갈리는 경우, 그 단어를 다양하게 '활용'시켜보면 쉽게 '어간'과 '어미'를 찾을 수 있어요.

예 이뤄 ⇨ 이루다, 이루자, 이루고, 이루니 ... ⇨ '이루-'가 어간, '-어'가 어미

예 달리자 ⇨ 달리다, 달리어, 달리고, 달리니 ... ⇨ '달리-'가 어간, '-자'가 어미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미'의 경우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합시다. 여러 형태의 문제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먼저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봅시다.

어말 어미	종결 어미(문장이 끝남)	밥을 먹 <u>다</u> . 먹 <u>니</u> ?
	연결 어미	밥을 먹 <u>고</u> 가라.
	전성 어미(성격을 바꿔줌)	밥 먹 <u>을</u> 사람
선(先)어말 어미(시제, 높임)	밥 먹 <u>었</u> 니? 집 <u>에</u> 가 <u>시</u> 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어미'는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뜻을 이해해보세요. '어말 어미'의 경우, 말 그대로 '어말', 즉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입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다', '-니', '-고' 등은 모두 한 단어의 끝에 제시되고 있죠?

한편 '선어말 어미'의 경우, '선/어말' 어미입니다. '단어의 끝'보다 '선(先)', 즉 '먼저' 온다는 것이죠. 예시를 보시면, '-었-', '-시-' 등이 보이죠? 이들은 각각 '-니', '-다'라는 '어말 어미' 앞에서 '시제'나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이처럼 '선어말 어미'의 경우, '과거/현재' 등의 '시제'를 나타내거나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입니다.

· 어말 어미의 종류

'높임', '시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선어말 어미'와는 달리, '어말 어미'는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에 theme 2, 3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도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백지에 쓰면서 미리미리 외워주세요.

① 종결 어미 : 말 그대로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입니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등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를 알 필요는 없고, 문장을 끝내준다는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연결 어미 :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어미입니다. 앞뒤가 'and, or, but'의 의미로 연결되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그 이외의 의미로 연결되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동일하면 '대등적 연결 어미'가 쓰인 것이고, 동일하지 않으면 '종속적 연결 어미'가 쓰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 밥도 먹고 영화도 봤다. ⇨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다.'로 바꿔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사용, and의 의미)

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것이다.'로 바꿔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등적 연결 어미 '-거나' 사용, or의 의미)

예) 민재는 사과를 먹지만, 진우는 포도를 먹는다. ⇨ '진우는 포도를 먹지만, 민재는 사과를 먹는다.'로 바꿔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 사용, but의 의미)

예) 그가 오면 출발할 것이다. ⇨ '출발하면 그가 올 것이다.'로 바꾸면 그 의미가 변합니다. (종속적 연결 어미 '-(으)면' 사용)

예)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겠다. ⇨ '밥을 먹으니 배가 고프겠다.'로 바꾸면 그 의미가 변합니다. (종속적 연결 어미 '-(으)니' 사용)

예) 민재가 좋아서 미칠 것 같다. ⇨ '미칠 것 같아서 민재가 좋다.'로 바꾸면 그 의미가 변합니다. (종속적 연결 어미 '-(아)서' 사용)

이 외에도 분용언과 보조용언(앞에서 배웠죠?)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아, -어, -지, -고, -게)도 있습니다.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③ 전성 어미 : ‘轉(구를 전 - ‘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성 어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질을 바꾸는’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엮어 학습할 수 있는 개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theme 2, theme 3, theme 4에서도 계속 만나게 될 개념입니다. 정말 열심히 정리해야겠죠? 전성 어미는 아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 어미 - (으)ㄴ, -기

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기’가 ‘비다 오다’라는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 줍니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 - (으)ㄴ, -는, -(으)ㄹ, -던

예) 나는 [동생이 입을] 옷을 보았다. ⇨ ‘-은’이 ‘동생이 입을’이라는 문장을 관형사처럼 만들어 줍니다.

부사형 전성 어미 -게, -도록, -듯이

예) 나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 ‘-도록’이 ‘아이들이 지나가다’라는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용언에 ‘명사’, ‘관형사’, ‘부사’의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전성 어미’입니다. ‘동사/형용사’라는 품사(용언에는 이 두 가지 품사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죠?)는 그대로지만, 마치 ‘명사’, ‘관형사’, ‘부사’가 된 것처럼 활용하게 해 주는 것이죠. ‘어미’는 용언의 모습을 바꾸는 ‘활용’을 도울 뿐이기 때문에, ‘품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세한 건 뒤에서 계속해서 배울 것이니, 딱 이 정도로만 알아 둡시다.

· 용언의 활용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용언은 ‘활용’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활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 번 나오면 항상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파트입니다.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① 규칙 활용 : 일반적인 활용을 의미합니다. 용언이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채로 활용되는 경우예요.

예) 먹다 ⇨ 먹고, 먹으니, 먹자, 먹은 ...

그런데 여기서, ‘ㄴ’ 탈락과 ‘ㄹ’ 탈락이라는 것도 ‘규칙 활용’으로 칩니다. 활용할 때 어간에 있던 ‘ㄴ’와 ‘ㄹ’이 탈락하는 경우예요.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규칙 활용’의 정의를 생각할 때, 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죠. 일단 ‘ㄴ’ 탈락과 ‘ㄹ’ 탈락의 예시를 살펴 볼까요?

예) ㄴ 탈락 : 잠그다 ⇨ 잠가, 바쁘다 ⇨ 바빠, 슬프다 ⇨ 슬퍼, 크다 ⇨ 커

예) ㄹ 탈락 : 알다 ⇨ 아느냐, 살다 ⇨ 사니

그럼 이들은 왜 ‘규칙 활용’일까요? ‘ㄴ’ 탈락과 ‘ㄹ’ 탈락은 100%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모습이 변하지만, ‘보편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 상황은 평가원이 사랑하는 출제 포인트 중 하나겠죠? 확실하게 기억해둡시다.

② 불규칙 활용 :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변하면서 활용되는 경우를 의미해요. ‘어간’의 모습이 변하는 경우, ‘어미’의 모습이 변하는 경우, 두 모습 모두 변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 어간이 바뀌는 경우 (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ㅅ’ 불규칙	‘ㅅ’ 탈락	잇다 → 이어, 짓다 → 지어
‘ㄷ’ 불규칙	‘ㄷ’ → ‘ㄹ’	묻다(問) → 물어
‘ㅃ’ 불규칙	‘ㅃ’ → ‘ㄱ/ㄷ’	돕다 → 도와, 덥다 → 더워
‘ㄹ’ 불규칙	‘ㄹ’ → ‘ㄹㄹ’	흐르다 → 흘러, 빠르다 → 빨라
‘우’ 불규칙	‘우’ 탈락	푸다 → 퍼

· 어미가 바뀌는 경우 (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여’ 불규칙	(‘하-’ 뒤에서) -아 → -여	하다 → 하여 (유일)
‘러’ 불규칙	-어 → -러	푸르다 → 푸르러, 이르다(至) → 이르러

·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 (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ㅎ’ 불규칙	어간의 ‘ㅎ’ 탈락 & 어미 변함	하얏다 → 하얘, 파랗다 → 파래

· ‘르’로 끝나는 어간의 ‘러’ 불규칙 vs ‘르’ 불규칙 vs ‘-’ 탈락

흐르다 ⇨ 흘러 (‘르’ 불규칙) : 어간 불규칙 활용(흐르- + -어)

푸르다 ⇨ 푸르러 (‘러’ 불규칙) : 어미 불규칙 활용(푸르- + -어)

치르다 ⇨ 치러 (‘-’ 탈락) : 규칙 활용(치르- + -어)

이 사례들은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언의 경우 이야기할 내용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지식을 공부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 이번 theme에서는 딱 이 정도로만 정리합니다.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음 페이지에 스스로 쓰면서 정리해봅시다.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만 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손으로 만드는 개념 정리 노트

해당 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자유롭게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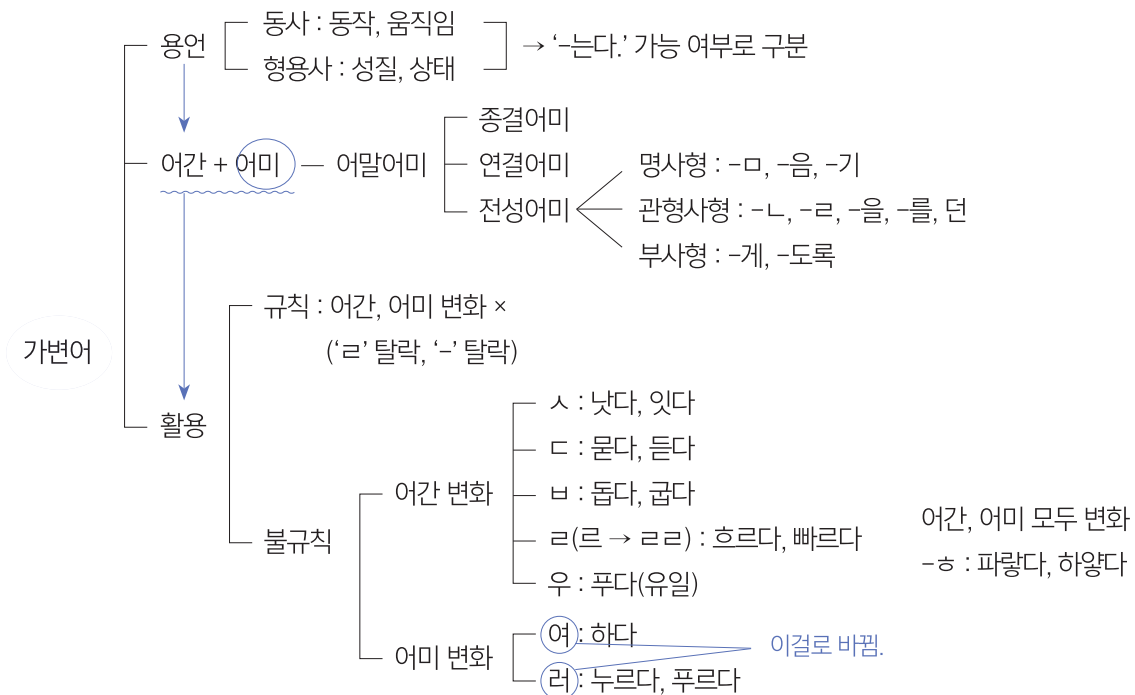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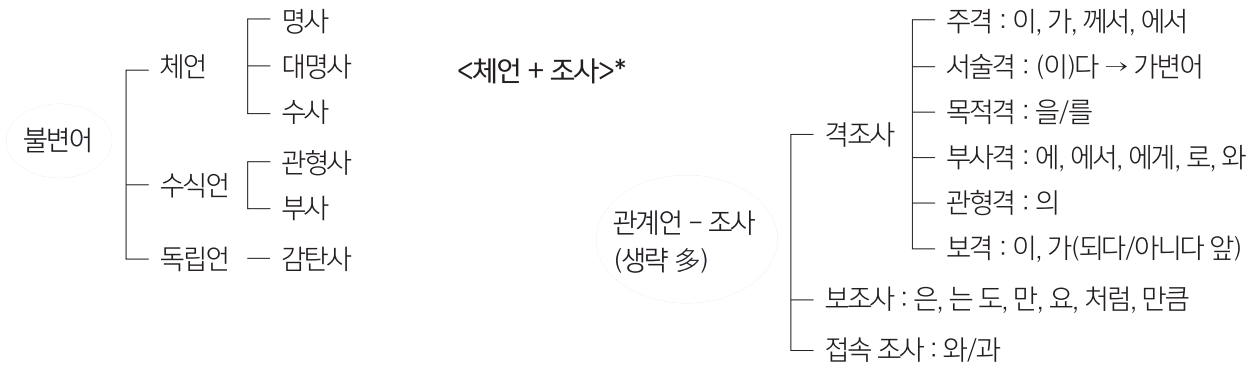
나중엔 이 노트들만 읽어도 책 한권 내용이 다 들어오게 정리하면 제일 좋겠죠?

P.I.R.A.M

㉔ 행동 양식 정립

첫 번째 theme은 '품사'였습니다. 품사 관련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품사' 자체를 묻는 문제보다는 뒤에서 배울 '문장 성분', '어근/접사' 개념 등과 함께 연계되어 출제되는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따라서 이번 파트에서 정립해드릴 행동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연습해 봐요. 아래 표를 백지에 적어 보면서, '품사' 체계를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합시다.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막막하기만 할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시면 은근히 쉽게 정리될 겁니다. 각 개념을 쓰면서, 스스로 설명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혹시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못 하겠다면 꼭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꼭 하셔야 해요! 꼭!

· 품사(단어의 이름)



㉔ 행동 양식 정립

이번 theme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수능에서 빼먹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단골 소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낮은 정답률을 기록하는 고난도 소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theme는, 아래의 행동 양식을 확실하게 정립해두면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기출문제들에 적용해보면서, 겹문장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도록 합시다.

먼저 아래의 기출문제를 풀어봅시다.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스스로 풀어보셔도 좋아요.

15 <보기>의 ㉔~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03

[보기]

- ㉔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㉕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 ㉖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 ① ㉔는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 ② ㉔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㉕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㉖는 ㉔와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㉕와 ㉖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의 '행동 양식'에 맞추어 해결해봅시다.

겹문장을 분석하는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 2) 인용절 찾기 ('-라고/-고'만 찾으면 됩니다. 없으면 pass)
- 3) 서술절 찾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찾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문장의 진짜 서술어에 걸리는 다른 주어가 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4) 전성어미 찾기 (명사형 / 관형사형 / 부사형)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분석한 뒤에 선지 판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선지를 보면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풀이를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음 표를 참고하면 이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안긴문장의 종류	예
명사절	- (으)ㄴ: 그가 범인임이 드러났다. -기: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관형사절	- (으)ㄴ: 내기에서 진 사람이 밥을 사자. -는: 저기 혼자 가는 사람은 누구지? - (으)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던: 먹던 사과를 버리고 새 사과를 먹었다.
부사절	-게: 그는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도록: 빙수는 이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듯이: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다. -이: 영수는 말도 없이 학교로 가 버렸다.
서술절	서울은 집값이 비싸다.
인용절	조카가 “비 내리는 소리가 좋으세요?”라고 물었다. 조카가 비 내리는 소리가 좋냐고 물었다.

나아가 ‘명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된 ‘명사절로 안긴문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사절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까지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각 예문이 왜 해당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빠르게 theme 2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장 성분	예
명사절 주어	그가 범인임이 드러났다.
명사절 목적어	나는 그가 범인임을 알았다.
명사절 부사어	지금은 아직 집에 가기에 이르다.
명사절 관형어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명사절 보어	이것은 대중을 위함이 아니다.
명사절 서술어	나의 목표는 환경을 잘 보호하기이다.

한편, 관형사절로 안긴문장과 부사절로 안긴문장의 경우 각각 ‘관형어’, ‘부사어’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이해해보세요.

문장 성분	예
관형사절 관형어	내기에서 진 사람이 밥을 사자.
부사절 부사어	그는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겹문장 분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안긴문장’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안긴문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파악했는지, 안긴문장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는지, 안긴문장은 어떤 문장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이를 유형화 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위의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안긴문장을 정확히 발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위 문제에 적용해볼까요?

㉞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맨 뒤에 있는 '서술어'에 주목하면 쉽습니다. '범인임이 밝혀졌다.'를 진짜 주어/서술어로 보는 것이 맞겠죠?

2) 인용절 찾기

직접 인용절의 표지인 '-라고' 혹은 간접 인용절의 표지인 '-고'만 찾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 넘어갑시다.

3) 서술절 찾기

'밝혀졌다'라는 진짜 서술어에 걸리는 다른 주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에 주격 조사 '이'가 보이므로 주어의 후보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밝혀졌다.'는 문장은 어색하니까요.

4) 전성어미 찾기

'-ㄴ, -음, -기' / '-(으)ㄴ, -는, -(으)ㄹ, -던' / '-게, -도록, -듯이' / '-이' (부사 파생 접미사) 등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보이는 순간 각각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로 처리하면 되겠죠? 먼저 '범인임'에서 '-ㄴ'이 보입니다!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니, '명사절로 안긴문장'이 있는 것이네요. 전성어미가 붙은 부분이 곧 서술어일 것이고, 이 서술어에 걸리는 주어까지가 하나의 안긴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전성어미 '-ㄴ'을 바탕으로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된 것이네요. 다시 말해, '범인임'이라는 하나의 어절이 아닌 '그 사람이 범인임'이라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이 '이'라는 '주격' 조사와 만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주격' 조사가 붙었으니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점. theme 1~3의 내용을 잘 정리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외 다른 전성어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문장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㉞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 명사절로 안긴문장 / 주어의 역할

조금 감이 잡히시죠? 다른 문장도 먼저 스스로 분석해보고 아래의 설명을 읽도록 합시다.

㉟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한국인의 감을 이용하면, '선수는 포기하였다.'가 뼈대를 이루는 진짜 주어/서술어겠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봅시다.

2) 인용절 찾기

'-라고', '-고'만 찾으면 됩니다. 없네요.

라 기출문제 풀이

01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2014.06AB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을】 별에 찍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02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4.06B

[보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ㅓ, ㅕ’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ㅓ’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ㅑ]와 같아진다.
- ‘예, 레’ 이외의 ‘ㅑ’는 [ㅑ]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ㅓ’는 항상 [ㅓ]로 발음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ㅓ’는 [ㅑ]로, 조사 ‘의’는 [ㅑ]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게’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② ‘금괴’를 [금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지혜’를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비취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충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0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2014.09A

갈-리다¹ ㉠

① ‘갈다’ ①의 피동사.
 ㉡ 맷돌에 콩이 갈리다.

② ‘갈다’ ②의 피동사
 ㉢ 벼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² ㉠ ‘갈다²’의 피동사.
 ㉡ 눈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¹’을 보니, ‘갈다¹’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¹’과 ‘갈-리다²’를 보니, ‘갈다¹’과 ‘갈다²’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¹’을 보니, ‘갈-리다¹’은 ‘갈다¹’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¹’ ①을 고려할 때, ‘갈다¹’ ①의 용례로 ‘맷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²’를 고려할 때, ‘갈다²’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04 <보기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2014.09AB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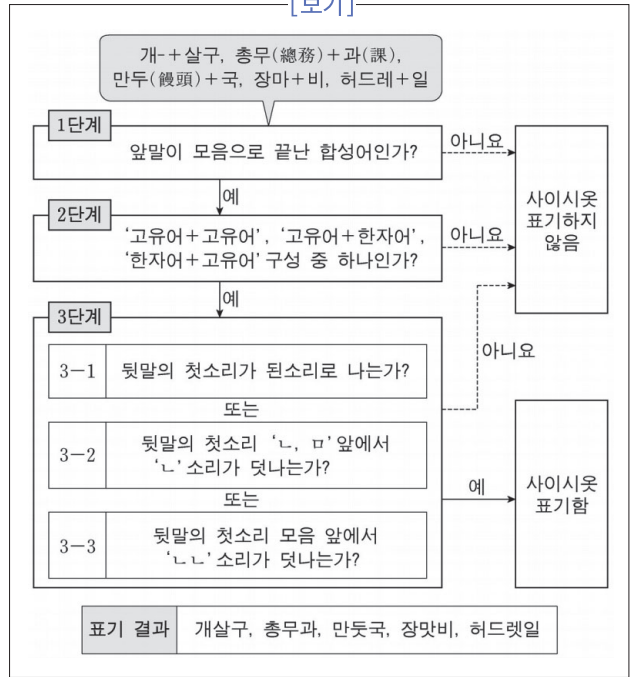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 학 생 :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어머니 : 학교 늦겠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 아 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학생A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 학생B :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언니 : ㉣어쩍 이럴 수 있니?
 - 동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다 |
| ③ | 나 | 라 |
| ④ | 다 | 나 |
| ⑤ | 다 | 라 |

05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09B

[보기]



- ① '개- + 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 + 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 + 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 + 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 + 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06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4.09B

질문 :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인데 [ㅍ]과 [ㅂ]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떠’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0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11AB

[보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08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4.11B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걸-웃[거돋],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뇨], 흠-이불[훈니불]

- | | |
|---------|-------|
| ㉠ | ㉡ |
| ① [꼰니랑] | [꼬도목] |
| ② [꼰니랑] | [꼬초목] |
| ③ [꼰니랑] | [꼰노목] |
| ④ [꼬디랑] | [꼬초목] |
| ⑤ [꼬디랑] | [꼬도목] |

09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06A

[보기]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10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2015.06AB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뵙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쓸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뵙아가다

```

    graph TD
      A[㉠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뵙아가다] --> B{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B -- 예 --> C[㉠]
      B -- 아니요 --> D{"-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D -- 예 --> E[㉡]
      D -- 아니요 --> F[㉢]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뵙아 가다 또는 뵙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뵙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뵙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뵙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뵙아 가다 또는 뵙아가다

1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06AB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p>[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p> <p>할머니: 어서 와라.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네, 엄마.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네,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아니에요,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응,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p>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1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06B

선생님: 로마자 표기법은 국제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음 자료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표기	표준 발음	올바른 로마자 표기	
가락	[가락]	garak㉠
앞집	[압집]	apjip㉡
장릉	[장:농]	jangnong㉢

학 생:

- ① ㉠에서 ‘가’의 ‘ㄱ’은 ‘g’로, ‘락’의 ‘ㄱ’은 ‘k’로 표기한 것을 보니, ‘가락’의 두 ‘ㄱ’은 같은 자음이지만 다른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표기한 것을 보니, ‘앞집’의 ‘ㅍ’과 ‘ㅂ’은 다른 자음이지만 동일한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③ ㉢에서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인 ‘:’가 로마자 표기에 없는 것을 보니, 장단의 구별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 ④ ㉠에서 ‘락’의 ‘ㄹ’은 ‘r’로, ㉢에서 ‘릉’의 ‘ㄹ’은 ‘n’으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장릉’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 ⑤ ㉡에서 ‘집’의 ‘ㅈ’과 ㉢에서 ‘장’의 ‘ㅈ’을 같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앞집’의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1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2015.09A

[보기]

학 생: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 봅시다.

조음 방식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 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퉈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③ ㉠에는 ‘뺑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은 없었습니다.

④ ㉡에는 ‘집에’라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⑤ ㉢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만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감이 잡히죠? 이런 훈련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14 ⑤

㉠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음식은 알맞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알맞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아이가 알맞다’라는 문장은 어색하니까요.

4) 전성어미 찾기

다져‘진’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먹‘기’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이) 잘 다져졌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관형어 역할을, ‘아이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나는 알았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알았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그가 알았다.’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4) 전성어미 찾기

소리도 없‘이’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를, 사라졌‘음’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찾을 수 있네요.

결국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부사어 역할을,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그가 외쳤다.’

2) 인용절 찾기

조심하라’고’에서 ‘-고’가 확인됩니다. 처음으로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 확인되네요. 참고로 ‘-라고’가 아닌 이유는, ‘-라고’는 직접 인용(쉽게 생각하면 따옴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3) 서술절 찾기

‘외쳤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는 없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달리‘는’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발밑을 조심해.’라는 문장이 인용절로 안겨 있고, ‘(내가) 운동장을 달린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① ㉠의 명사절은 부사격 조사 ‘에’와 함께 쓰여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고, ㉡의 명사절은 목적격 조사 ‘을’과 함께 쓰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② ㉠에서는 부사절이 없는데, ㉡에는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쓰인 부사절이 있습니다.

③ ㉢은 유일하게 ‘인용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했다는 건 ‘간접 인용’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④ ㉠과 ㉡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의 주어(음식이, 내가)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⑤ ㉣의 ‘소리도 없이’라는 안긴문장은 명사절로 안긴문장에 안겨 있습니다. 하지만 ㉣의 두 안긴문장은 서로를 안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네요.

15 ①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내 친구의 것이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내가 빌‘린’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확인할 수 있네요.

결국 ‘내가 (자전거를) 빌렸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우리는 도착했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도착했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공연이 도착했다.’는 의미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4) 전성어미 찾기

시작되‘기’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확인할 수 있네요.

결국 ‘공연이 시작된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 관형어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영수는 길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길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 ‘손가락이’가 있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치‘는’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고, ‘(영수는)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속였음이 드러났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드러났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파수꾼이 드러났다’는 의미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4) 전성어미 찾기

사‘는’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속였‘음’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찾을 수 있네요.

결국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진짜 주어가 곧 안긴문장이었던 특이한 형태네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마을에 산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관형어의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복잡했네요.

① ㉠에는 서술절로 안긴문장이 없습니다. 바로 정답이네요.

② ㉠과 ㉡ 모두 관형절로 안긴문장이 존재했습니다.

③ ㉠의 안긴문장은 주어 + 서술어의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누구보다’, ‘잘’이라는 부사어가 들어 있네요.

④ ㉢에는 관형절은 없었지만,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게 ‘관형절’이 아니라 ‘관형어 역할’임에 주의하세요! 또한 ㉣에는 ‘이’라는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 있습니다.

⑤ ㉢과 ㉣ 모두 ‘영수는’,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네요.

처음엔 헷갈리고 많이 어려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다보니 점점 빠르고 정확해지죠? 이제 겁문장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16 ②

- <학습 활동>의 요구 사항은 ㉠에 해당하는 것만을 찾아 보라는 것입니다. ㉠은 안긴문장이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는 상황이기며, '서술절로 안긴문장'(㉡)과 '관형절로 안긴문장'은 일단 제외해야 합니다. 나아가 '명사절로 안긴문장' 중에서도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 이러한 종류의 문장도 제외하면 되겠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와 ㉢를 제외하고 ㉠와 ㉣만 답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겹문장 분석을 연습하는 단계이니, 주어진 문장들을 앞에서 공부한 방식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는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입니다. '가'는 일종의 보조사처럼 쓰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쉽지 않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노래를 부르'기'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확인할 수 있네요.

결국 '내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꽃이 피었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피었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아무도 모르'게'에서 부사형 전성어미를 확인할 수 있네요.

결국 '아무(가)도 모른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나는 갔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갔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동생이 갔다.'라고 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죠?

4) 전성어미 찾기

동생이 오'기'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확인할 수 있네요.

결국 '동생이 온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이번에도 '전'이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내 동생은 착하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착하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로 '마음씨가'가 있네요.

4) 전성어미 찾기

전성어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17 ①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나는 바란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바란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내 친구가 보'낸'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제시간에 받'기'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확인할 수 있네요.

3) 선지 독해

① ‘씨-’와 ‘-어라’가 결합하면 ‘씨가’로 써야죠. 바로 정답입니다.

② 그렇죠. ‘-어’가 없으면 ‘씨가’를 쓸 수 없는 거예요.

③④ 같은 맥락이죠? ‘씨’ + ‘-어’ = ‘씨가’!

⑤ ‘-어’가 없으면 ‘씨가’를 쓸 수 없습니다!

25 ⑤

① 확인해보면 됩니다. ‘굳다’는 형용사와 동사 모두가 있는데, ‘녹다’는 동사만 존재하네요.

② 무른 물질이 단단해지는 것은 ‘굳다」①’이고, 단단한 물질(고체)이 물러지는 것이 ‘녹다」②’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예문들은 반의 관계를 가진 단어가 사용된 것이겠죠.

③④ 역시 의미를 생각하면 예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⑤ ‘녹다」②’는 결정체 같은 것들이 ‘물’에 녹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콜릿’은 물에 녹은 게 아니라 열에 녹은 것이죠? 애초에 저 의미를 따르지 않는 내용이니 문형 정보를 따라갈 이유도 없겠네요.

26 ①

1) 발문 독해 : 발문만 가지고는 무언갈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①과 무관한 내용을 찾아봅시다.

2) <보기> 독해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고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립 명사’와 ‘단위’!

3) 선지 독해

① ‘굳데’는 혼자서 쓸 수 없는 명사죠? 애초에 ‘의존 명사’이기에 탈락입니다.

②③④⑤ 모두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자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기능하고 있죠?

27 ②

1) 발문 독해 : 이번에도 표준 발음법 문제네요.

2) <보기> 독해 : 이번엔 구개음화 후 연음과 자음 축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 하나하나 확인해봅시다.

3) 선지 독해

① ㉠은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같이’는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② ㉠은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술이나’에서 ‘이나’는 보‘조사’에 해당하니, ㉠의 예시로 적절하네요.

③ ‘이다’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의 예시라고 해야겠죠?

④ ‘받히다’는 자음 축약이 되는 상황이네요. 자음 축약은 ㉡에 해당하니 틀렸네요.

⑤ ‘붙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입니다. ㉡은 접미사 ‘-히-’가 결합된 상황을 의미하니, ㉡이 아니라 ㉢의 예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28 ①

1) 발문 독해 : 이번에도 발음법 문제입니다. 독해하고 탐구할 준비해봅시다.

2) <보기> 독해 : ‘오’와 ‘요’를 쓰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세 가지 경우가 제시되었네요. 종결형, 연결형, 조사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3) 선지 독해

㉠ 문장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에 대응시키면 되겠네요.

㉢ ‘가지’로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에 보조사 ‘요’를 붙인 상황이네요. ㉣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29 ④

1) 발문 독해 : 역시 발문을 통해 대단한 걸 얻기는 힘듭니다.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봅시다.

2) <보기> 독해 : 보조 용언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더 확실한 구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네요. ‘-고 있-’을 ‘-는 중이-’로 바꾸어도 말이 되면 ㉠이고, 말이 되지 않으면 ㉡의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죠?

3) 선지 독해

① “형은 양치질을 하는 중이었어요.”라고 해도 말이 되네요. ㉠의 예시입니다.

②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는 중인 것 같아.”라고 하면 부자연스럽죠? ㉡의 예시입니다.

③ “아, 나 그거 이미 아는 중이었어.”라고 하면 부자연스럽죠? ㉢의 예시입니다.

④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는 중이어서 괜찮아.”라고 하면 부자연스럽죠? ㉢은 ㉠과 ㉡가 모두 가능해야 하는데, 이 맥락에선 ㉠로 보기 어려우니 ㉢의 예시는 아니네요.

⑤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는 중이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럼 일단 ㉠로 쓸 수 있는데, (넥타이를 매는 동작을 하는 중) 넥타이를 매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로 ㉡로 쓸 수도 있겠네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니 ㉢의 상황이 가능하겠습시다.

30 ②

① 그러네요. 특히 ‘같이㉡’의 경우 예문을 통해 ‘같이’가 쓰인 단어들에 부사어임을 알 수 있죠? 그럼 부사격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② ‘같이㉡①’의 뜻은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입니다. 그럼 선지에 제시된 예문이 ‘매일이 보이는 특징처럼 지하철을 타다.’가 되는 건데, 많이 어색하죠? ‘매일’이라는 그때를 강조하는 표현이니, ‘같이㉡②’의 용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③ 일단 ‘하다’의 ‘하-’가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굳이 저걸 확인하지 않아도 맞는 말이에요. 물론

표제어가 ‘같이-하다’처럼 제시되어 두 말을 붙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같이’와 ‘같이하다’의 뜻풀이가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더 정확히 알 수 있기도 합니다.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는 【(…과)…을】로 제시되어 있어요. ‘과’가 붙는 필수적 부사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있으면 세 자리 서술어, 없으면 두 자리 서술어죠?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어’는 기본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⑤ ‘같이하다’와 ‘함께하다’의 의미가 같으니 바꿔 쓸 수 있습니다.

31 ⑤

1) 발문 독해 : 지켜온 표준 발음입니다. ‘적용 내용’과 실제 ‘발음’이 모두 정확한 내용을 찾으라고 하네요. ‘적용 내용’이 어떤 것이 제시되었을까요?

2) <보기> 독해 : 다섯 가지의 ‘적용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이걸 굳이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지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묻고 있으니까요! 선지 판단하면서 알아봅시다.

3) 선지 독해

① ‘어둡이’에 ㉠이 적용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등과 연결될 때에 대한 것으로, 겹받침 ‘ㄹ’이 주격 조사 ‘이’와 연결된 ‘어둡이’는 여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기라고 했죠? 그럼 [어덜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음이 잘못된 선지네요.

② ‘뫼을’에 ㉠이 적용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ㄱ’이라는 겹받침이 목적격 조사 ‘을’과 연결되었으니 ㉠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ㅅ’을 넘기는 경우에는 [ㅅ]으로 발음하라고 했죠? 그럼 [목썰]로 발음해야 하기에, 이번에도 발음이 잘못된 선지네요. 허투루 준 정보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독해해야 해요!

③ ‘휴만’에 ㉡와 ㉢이 적용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일단 ㉡는 겹받침이 ‘자음’ 앞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되어 발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휴만’은 이 내용에 부합하므로, ㉡가 적용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한편 ㉢~㉣은 ㉡가 적용된 이후의 발음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 비음화에 대한 내용이네요. 즉, ‘휴만→[휴만]→[휴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적용 내용’은 잘 이어졌는데, 발음이 잘못된 선지네요.

④ '값까지'에 ㉞, ㉟가 적용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일단 겹받침 뒤에 자음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㉞가 적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㉟는 'ㄱ, ㄷ, ㅂ, ㅅ, ㅈ'가 연결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값까지'는 'ㄱ'이 연결된 경우이므로 ㉟에 대응되지는 않네요.

⑤ '달하고'에 ㉞, ㉟가 적용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㉞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㉟는 '자음 축약'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ㄱ + ㅎ = ㅋ'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완벽한 정답 선지네요.

32 ⑤

⑤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 제삼자를 가리키는 게 맞지만, ㉡는 청자인 '아들'을 의미하죠?

33 ①

1) 발문 독해 : ㉠~㉣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씩 찾으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독해와 탐구를 해낼 준비하고 풀어봅시다.

2) <보기> 독해 :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변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적 없는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냥 '독해'해서 풀 수 있거나 한국인의 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쫄지 말고 덤벼 봅시다.

3) 선지 독해

㉠ : 직접 인용된 부분을 보면, 아들이 '어제' 말한 내용이 바로 '내일' 사무실에 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시점이 바로 '어제의 내일'인 '오늘'이므로, ㉠에 들어갈 말은 '오늘'이 되겠네요.

㉡ : 직접 인용된 부분에서는 '계시다'라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되면 굳이 높일 필요가 없으니, ㉡에 들어갈 말은 '있으라고'가 되겠네요.

㉢ : 직접 인용된 부분에서는 '언니'가 자신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되면 '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되므로, ㉢에 들어갈 말은 '자기의'가 되겠네요.

㉣ : '남겨라'는 '남기- + -어라'의 형태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명령형을 간접 인용문의 형태로 바꿀 때는 '남기- + -라 + 고'의 형태로 바뀌어야 해요.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남기라고'가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는 것도 좋은데, 사실 한국인의 감으로 '남겨라고'보다는 '남기라고'가 더 자연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또한 평가원은 ㉢까지만 잘 찾으면 ㉣는 판단하지 못해도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출제해 준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지역적인 개념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34 ①

1) 발문 독해 : 이번에도 발문만 보고 어떤 문제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봅시다.

2) <보기> 독해 : ㉠과 ㉡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다른 건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네요. ㉠은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이고, ㉡은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3) 선지 독해

① ㉠은 물이 공간적으로 '낮은'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은 '관심도'라는 추상화된 의미의 정도가 약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 선지네요.

② '주변-주변'의 쌍이네요.

③ '중심-중심'의 쌍이네요.

④ '주변-주변'의 쌍이네요.

⑤ '주변-중심'의 쌍이네요.

35 ③

㉠ : '나경' 개인을 의미합니다.

㉡ : '수빈, 나경, 세은' 셋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 : '수빈' 개인을 의미합니다.

㉣ : '수빈'을 제외한 '나경, 세은'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 : '수빈, 나경, 세은' 셋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36 ①

① 뜻풀이가 추가된 것은 맞는데, '중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대로죠? 틀린 선지네요.

②③④⑤ 그러네요.<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너무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7 ⑤

① '아까'라는 과거에 다음 주 약속이라는 미래의 일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니, '-더-'를 사용할 수 있네요.

② '놀랍다'라는 감정을 1인칭 주어가 사용하는 평서문이니, '-더-'가 쓰일 수 있네요.

③ '밧다'라는 감정을 2인칭 주어로 사용하는 의문문이니, '-더-'가 쓰일 수 있네요.

④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우리'라는 1인칭 주어가 '-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례네요.

⑤ ㉠은 꿈속이나 무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선지의 예문은 꿈속도, 무의식도 아니죠? ㉠에 대응될 수 없겠네요.

38 ③

1) 발문 독해 : 발문으로 무언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봅시다.

2) <보기> 독해 : '최소 대립쌍'에 대한 내용이네요. theme 6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이 문제가 나올 때만 해도 생소했던 개념이라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던 문제였어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배운 적 없는 것 같은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냥 '독해'해서 풀 수 있거나 한국인의 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지 말고 덤벼 봅시다.

먼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라는 '최소 대립쌍'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A]에서 최소 대립쌍을 추출하고 [B]에서 확인하자고 했으니, 먼저 [A]에서 최소 대립쌍부터 추출해야겠네요.

- 쉬리 : 소리 → '귀'와 '고'라는 음운을 추출할 수 있네요.
- 마루 : 머루 → 'ㅌ'와 'ㄷ'라는 음운을 추출할 수 있네요.
- 구실 : 구슬 → 'ㅣ'와 'ㅡ'라는 음운을 추출할 수 있네요.

'모래'는 '마루/머루'와 짝을 이루기엔 두 가지의 음운이 다르죠?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을 추출할 수 없으니 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귀, 고, ㅌ, ㄷ, ㅣ, ㅡ'라는 음운들을 추출했습니다.

3) 선지 독해

① 전설 모음은 'ㅣ'와 '귀' 2개가 있습니다.

② 중모음은 'ㅌ'와 '고' 2개가 있습니다.

③ 평순 모음은 'ㅣ', 'ㅡ', 'ㅌ', 'ㅌ'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④ 고모음은 'ㅣ', '귀', 'ㅡ' 총 3개가 있습니다.

⑤ 후설 모음은 'ㅡ', 'ㅌ', '고', 'ㅌ' 총 4개가 있습니다.

39 ③

1) 발문 독해 : 이번에도 발문으로 무언갈 알기는 어렵네요. ㉠과 ㉡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2) <보기> 독해 : 'ㄱ', 'ㄴ'가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던 이유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ㄱ', 'ㄴ'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에 주목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3) 선지 독해

㉠ : 우리는 <보기>를 독해하며 '이중 모음' 뒤에 붙는 조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모음 ㅣ'가 붙은 '불휘라'에 주목해야겠네요. 이중 모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모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에 들어갈 말은 '불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단어에 주목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 : '불휘라'에 붙은 조사는 'ㅇ'입니다. 그럼 ㉡에도 'ㅇ'가 들어가야겠네요.

<보기> 독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했다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66~67]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밭’, ‘솔’, ‘이튿날’이 ‘밭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 것과 같은 현대 국어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지문입니다. 이제부터 ‘밭가락’, ‘소나무’, ‘이튿날’이라는 단어의 옛 모습이 나오겠죠? 이로부터 이들의 모습이 다른 이유를 탐구해봅시다.

‘소나무’에서는 ‘밭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도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사적 사실을 탐구해야겠죠.

‘밭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밭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밭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밭 엄지 가락(엄지밭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접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밭 가락’은 현대 국어 ‘밭가락[밭까락]’이 되었다.

먼저 ‘밭가락’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밭 가락’의 형태라고 하네요. ‘밭가락’은 ‘ㄹ’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관형격 조사였던 ㅅ이 소실되면서 ㄹ은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이네요. 어렵지 않죠?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솔’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솔’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번엔 ‘소나무’입니다.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굳어져 ‘ㄹ’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네요.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튿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뭇 사람’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엔 ‘ㄹ’이 ‘ㄷ’으로 변한 형태인 ‘이튿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밭가락’처럼 ‘이튿 + 날’도 원래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중세 국어에선 ‘이튿 날’로도 쓰였는데, 이게 근대 국어로 오면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졌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대로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게 되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8 중성법 → 7 중성법)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끝소리 ‘ㄹ’인 말(이튿)과 탄 말(날)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튿날’이 아닌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튿 날’ → 이튿날 → 이튿날의 변화 양상을 보인 것이네요.

하지만 현재의 규정은 ‘ㄹ’이 ‘ㄷ’으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납득하시면 됩니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다면 '이튿날'로 쓰는 것이 맞으니까요.

지문이 꽤나 까다로웠지만, '독서 지문처럼'이라는 기본 태도만 갖춰져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ㄹ'이 그대로 있는 경우, 'ㄹ'이 탈락하는 경우,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 지문이었습니니다. 각각 '관형격 조사의 소실', '합성 명사에서의 음운 규칙', '관형격 조사의 소실 및 7 종성법으로의 변화'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ㄹ'이 'ㄷ'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제대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66 ②

- ㉠~㉢의 사례를 하나씩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무술(물 + 술) : 원래 있던 ㄹ이 탈락한 모습입니다.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된 것이죠?

쌀가루(쌀 + 가루) : 원래 있던 ㄹ이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쌀 가루'는 '쌀의 가루'이니, 원래 '쌀 가루'였던 것이 관형격 조사 'ㅅ'이 소실되면서 '쌀가루'가 된 모습이죠?

낱알(낱 + 알) : 이 지문의 핵심은 'ㄹ'의 변화 양상입니다. '낱알'은 원래부터 받침이 'ㄷ'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묻는 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지문의 화제,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 등을 '독해'해야만 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낱알'의 'ㄷ'만 보고 답으로 골라 놓고, '낱였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해요!

술방울(술 + 방울) : '쌀가루'와 같은 예시입니다. 원래 있던 ㄹ이 관형격 조사 ㅅ의 소실로 그대로 있는 모습이네요.

선달(설 + 달) : 이번에는 'ㄹ'이 'ㄷ'으로 변한 예시네요. 원래 '섣달'이었던 것이 '섣달'로 굳어졌다가 7 종성법으로 변화하면서 '선달'이 된 모습이네요.

푸나무(풀 + 나무) : ㄹ이 탈락한 모습입니다.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된 것이예요.

이를 지문에 제시된 순서대로 배열하면,

'쌀가루, 술방울 / 무술, 푸나무 / 선달'이 되겠네요. 이 순서를 지킨 선지는 2번 선지밖에 없죠?

67 ⑤

- '순가락'과 '젓가락'의 받침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화제는 '국어의 변화 과정'이므로, 이 <보기>에서도 '순가락'과 '젓가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차분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풀면 답이 없어요!

순가락) 술/숯 → 순가락 → 순가락 : '이튿날'과 비슷한 예시네요. 'ㅅ'의 소실, 7 종성법으로 변화 등이 '순가락'이라는 발음을 만든 상황입니다.

젓가락) 저/젓 → 젓가락 : 원래부터 나타나던 'ㅅ'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단의 '국어의 변화 과정 고려'가 떠올라야 합니다. 글쓴이가 주장하던 내용과 직결되니까요! '순가락'은 변화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젓가락'은 변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잡아 놓고 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중세 국어에서는 '술'과 '저' 모두 관형어의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국어의 '술'은 '한'과 같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의존 명사'네요. 맞는 선지입니다.

② 그러네요. 중세 국어 부분을 보시면, '술'과 '저'가 합쳐서 ㄹ이 탈락한 '수저'가 되었고 이것이 현대 국어의 '수저'가 된 모습입니다.

③ 우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이죠? 'ㅅ'이 결합한 '숯', '젓'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④ 이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변화 과정을 고려하면 '순가락'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⑤ '순가락'이든 '뭇사람'이든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은 동일합니다. 현대 국어의 'ㄷ' 발음이겠죠. 하지만 '순가락'은 변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억지로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고, '뭇사람'은 변화 과정을 고려했기에 'ㅅ' 받침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순가락/이튿날' 계열과 '젓가락/뭇사람' 계열의 발음이 다른 이유, 즉 '변화 과정 반영'이라는 이유를 미리 체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독서 지문을 푸는 것과 똑같죠? 애초에 독서 능력이 부족하면 지문형 문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